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

일시: 12월1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4차 회의가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임효택·조미옥·이묘숙·이철갑·김경태·강대석·장우철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여덟 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올 한해 동안 세월호 이후 연이은 장성 요양병원 및 담양 펜션 화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언론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빛원전·남광주시장 비리 보도 ... 관행적 행태에 일침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고 교감)



**광주 지하철 2호선 등
소모적 논쟁없게 역할해야**

▲임효택=올해 마지막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찾아온 동장군 기세가 무섭다. 여전히 진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와 그 가족을 지켜보며, 국민은 뒷전인 채 사분오열하는 국회를 바라보아 하는 심정이 답답하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처럼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 단합하며 체온으로 버티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는 그동안 지하철 2호선 건설,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 부지선정 같은 문제에서 갈등을 거듭했다. 대규모 지역 개발이나 세계대회 유치는 활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마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언론 역할이 막중하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을 기우기는 지역 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관심을 당부한다. 일부 인기종목에는 선수도 팬도 몰리지 않는 체육분야에는 배고픈 선수들이 많다.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어 지역을 떠나는 선수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처지를 겪고 있는지 언론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겨울철 동계올림픽 기간 굶은 팜방울을 즐기는 선수들의 근황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다뤄주길 바란다.

▲조미옥=2016년 자유학기제 본격 시작을 앞두고 신문은 교육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학생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만이라도 시합 부담 없이 꿈과 적성을 찾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그동안 교과서 지식만 위주로 공부했다면 향후에는 학교 밖 세상 이야기를 접하며 지혜를 키워나가야 하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신문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곳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그냥 한번 듣고 잊혀지는 정보가 아닌 독자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도 곱씹어볼 수 있는 소식을 발굴해줬으면 한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역 인물을 적극 발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28일 22면에 독도를 다녀온 대학생 인터뷰가 실렸다. 영·호남 젊은이가 아름다운 독도를 보며 자부심을 얻고 애국심을 키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독도가 어떤 역사와 가치를 지녔는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런 기사로 더 많이 배우게 된다. 더불어 교과서는 학생만 보지만 신문은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보는 것이다. 대화가 줄어드는 우리 가정에 소통의 물꼬를 트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신문이 가족 모두가 보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언론 종사자들이 더욱 힘써달라.

▲이묘숙=남녀노소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목이다. 지난 8월 6일 문화면 기사 제목은 '페이퍼도, 예술이 되다'였다. 평범할 수 있는 제목을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게임처럼 배치함으로써 단번에 눈길을 사로 잡았다. 모든 기사를 읽는 독자는 많지 않다. 그럴수록 편집과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무릎을 탁 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제목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지난 7월 8일 18면 슬픈동물원이란 제목으로 기획 기사가 시작돼 지난 9월 2일까지 일곱차례 동안 게재됐다. 연일 이어지는 강력범죄를 보면 동물과 사람에 대한 생명존중 분위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 우리와 동시대 살고 있는 동물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심도있게 보여주는 기사였다. 특히 동물복지 선진국 사례를 제시해 우리가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준 것은 의미있는 시도였다. 또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커다란 사진과 이색적인 편집이 더해지면서 보는 재미, 읽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기사였다.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교사)



**학생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지역 인물 적극 발굴 필요**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슬픈 동물원 이색적인 편집
보는 재미에 읽는 재미까지**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한-중 FTA 시장개방
어떻게 맞설지 대안 제시**

▲이묘숙=올해 마지막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찾아온 동장군 기세가 무섭다. 여전히 진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와 그 가족을 지켜보며, 국민은 뒷전인 채 사분오열하는 국회를 바라보아 하는 심정이 답답하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처럼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 단합하며 체온으로 버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묘숙=남녀노소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목이다. 지난 8월 6일 문화면 기사 제목은 '페이퍼도, 예술이 되다'였다. 평범할 수 있는 제목을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게임처럼 배치함으로써 단번에 눈길을 사로 잡았다. 모든 기사를 읽는 독자는 많지 않다. 그럴수록 편집과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무릎을 탁 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제목을 더 많이 보고 싶다.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실장)



**혁신도시 원래대로 진척되게
지역언론이 역할 다해야**

▲김경태=지하철2호선 같은 지역 이슈에서부터 한빛원전 같은 국가적인 사안, 더 나아가 이웃 나라들과 체결하는 FTA나 디플레이션 흐름도 놓쳐서는 안된다.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준비 중인 미국도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국경제가 세계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현재, 거시적인 경제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을 먼저 겪은 이웃 일본 사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도무지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내수 시장,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율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일본에 있을 수 있다. 역사적인 문제에 천착한 나머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나주에 새 동자를 둔 한전 등 혁신도시가 원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전 되는 기관 직원들이 고민하는 부분, 지역민의 기대 등 다양한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강대석=지난 11월 19일자 1면 등 전남지역 시군이 추진 중인 무분별한 산업단지개발을 꼬집는 기사가 시의적절했다. 높은 미분양 비율에도 고금리 자금을 끌어들여 지어놓기만 한채 방치하는 '빛단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치책을 쌓기 위해 지역민의 무관심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이같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기사가 게재된 시기가 예산심의기간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보도였다.

24면 증편 이후 강화된 전남지역면과 문화면에서 알찬 정보가 많이 유익했다. 독자들이 증편효과를 지속적으로 체감하고 또, 꼭 필요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주길 바란다.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



**전남지역 무분별 산업개발
꼬집는 기사 시의적절**

장우철 (광주제능기부센터 사무처장)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철저한 감시 감독 절실**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없어
재난 사전 예방 대책 고민**

▲장우철=세월호부터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붕괴위험 사건까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나면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광주일보가 양동시장 내 화재 위험을 고발한 기사에서 드러났듯이 다중이용시설에 사고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재래시장은 물론 국민 헬스케어 지은 공공기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하철 2호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윤하=포근했던 날씨가 12월에 들어 공공 일어 불고 대형 사고가 연이어나면서 국민의 몸과 마음도 얼어 붙게 만들고 있다. 안전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안전불감증이 세월호와 대형 화재 참사를 불러왔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성급 다가온 겨울, 화재 등 위험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달라.

세월 추위가 가슴을 부리는 이런 때일수록 질풍노도(疾風怒濤)를 마음속에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일보가 여러 상황 변화 속에서도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사랑 받는 언론이 되길 기원한다.

/양세철기자 hot@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점 062)525-4835 광주송정점 062)941-3278

기차여행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무궁화호)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송정역출발)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송정역출발)
남이섬·춘천	정동진 새해일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1:1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23:32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07:00 정동진일출/천곡동굴/추암해대비루/목호항어시장 자유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암/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암/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6:18 춘천역 출발	15:30 동해역 출발	18:56 서대전역 출발	19:25 서대전역 출발
22:14 광주역 도착	22:50 광주송정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1:09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5,000원~ 소아 80,000원~	성인/경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